새길교회 043010
마태복음의 예수 이야기 박원일
23. 지배체제의 멸망선포

A. 성전멸망(24:1-2)

- 마태복음 24 장의 위치. 21 장과 관련=> "성전에 들어가서" (21:12) & "성전에서 나와서" (24:1)=> 그 동안 사건을 되돌아 볼 때,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. (이것이 성전붕괴/멸망으로 표현)
- 마가복음과의 차이. 막 13:4 "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…"; 마 24:3 "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…" => 마가복음에서 성전붕괴가 일어나는 때를 달리 표현. 마태복음이 예루살렘 성전멸망 이후 쓰였다고 볼 때, 이는 성전(체제)멸망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.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.
- 이 후 예수에 대한 고소(26:61)에는 "사흘 후에 성전을 재건"한다고 있지만, 이는 거짓 증언(26:60). Cf. 요 2:19-22 은 이런 전통을 알고 있었음=> 자신의 몸의 부활로 해석 (cf. 도마복음 71=> "I shall destroy this house, and no one will be able to rebuild it.")

B. 로마제국의 멸망

- 세상의 끝(συντέλεια τοῦ αἰῶνος)=> 이 세상/시대의 종말. 성전붕괴는 단지 이 일의 시작일 뿐.
- 마 24:28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. Q: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말을 할까? (Informative); 다른 의미=> 독수리는 로마제국의 상징, (cf. Eagle, American Emblem)
- 주검(로마제국의 멸망) 옆에 그들의 독수리, 곧 군대 기장(記章)이 널려져 있다=> symbolic yet graphic description.

C. 인자의 임함(presence, *parousia*)

- 임함(presence, *parousia*)=>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4 장에만 4 번. (바울서신 14 번; 그 외 6 번)
  - 오심/임재(παρουσία<=πάρειμι, παρα+ εἰμι, be present)의 의미=> 로마황제의 임재, 방문 (이것을 공포하면=>복음, 福音)
  - 마 24:30 (<=단 7:13-14)를 예수의 재림(?)과 관련해 해석. 그러나 여기서 인자는 하느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(vindication), 세상으로 오는 것이 아님 => 인자(예수)가 새로운 세상에서 leadership 발휘. 지배체제의 몰락과 함께(vv. 29-31),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림.
  - "The 'cosmic' language of 24:29 is drawn directly from OT prophetic passages where it functions not to predict the physical dissolution of the universe but a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catastrophic political changes within history." (R. T. France, *The Gospel of Matthew*, 891)
- 이 세대(ἡ γενεὰ αὕτη)가 지나가지 전에 이 일(πάντα ταῦτα=> v. 3 + more)이 다 이루리라—다시 읽기
  - 보통해석.
    - ①이 세대의 지나감; 혹은 ②이 일의 성취에 초점을 둠. 보통은 성서문자주의 태도에서 일의 성취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: a) (2000 년 동안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으로) 이 세대가 아직 안 지나갔다(세대주의). b)혹은 이미 지났다(자유주의). 고로 예언. 꽝! =>이런 이해는 맥없이 마냥 기다리든가(허송세월 혹은 반사회적 격리생활), 무시하는 경향을 낳았다.
    - 개역: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(초점=> 이 일이 반드시, 곧 이루어 진다.)
    - 직역: "이 일이 다 이루기 까지는, 이 세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" => 교훈?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!!!
  - 다시 읽기==> "이 세대가 없어지지 않는다/않을 것이다"의 의미는?
    - 문법적으로 주절이 핵심. 주절=> 이 세대는 악한 세대(12:39;17:17; 23:36); 종속절=>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… (예언/prediction 이 아닌, 상황/condition 을 말하고 있다!!!!!!!!!)
    - 초점을 오는 '예언의 성취'에 두지 않고, 현재에 두면---암담한 현실 속에서, 어떻게 해야 지금의 세상이 끝날까?
    -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는 이 세대는 절대로 [기냥] 사라지지 않는다=> 뜻?그만큼 이 세상/세대가 악으로 가득차고, 개혁하기가 힘들다.)
    - 인자의 오심/임재(*parousia*)와 관련된 공통점=> 예기치 못함(27, 37, 39). 고로 매 순간 결단의 삶=> 지배체제(쟁취, 승리)의 편에 설 것인가 혹은 예수의 뜻을 따라 상생의 삶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. 종말론적 삶은 (오지 않는) 미래를 기다림이 아니요,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=> 매 하루를 이 생의 마지막 삶처럼!

새길교회 043010
마태복음의 예수 이야기 박원일
23. 지배체제의 멸망선포

생각해 보기

1. 오늘날 교회가 성전(체제)를 대신한 것으로 볼 때, 예수님의(마태복음) 성전붕괴 선언을 어떻게 읽을까?

2. 종말사상은 늘 있어왔다. 요즈음에는 어떤 말/소문이 있나?

http://en.wikipedia.org/wiki/Eagle_(heraldry)

http://en.wikipedia.org/wiki/Eagle_(United_States_coin)